

다니엘서 - 번호 68

에스겔 8장의 예언적 메시지 밝히기: 일요일 법령과 말세

Jeff Pippenger

2024-02-01

에스겔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언적 장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장은 뚜렷한 시작점이 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그 달 다섯째 날에, 내가 내 집에 앉아 있고 내 앞에는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 있을 때, 그곳에서 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에스겔 8:1.

그 환상은 제11장에서 분명히 끝난다.

그 후에 영이 나를 들어 올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환상 가운데 나를 갈대아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로 데려갔다. 그리하여 내가 보았던 환상이 내게서 떠나 올라갔다. 그때 나는 포로된 자들에게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에스겔 11:24, 25.

8장의 환상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다섯째 날에 시작되는데, 이는 날짜가 '666'과 일치하기 바로 하루 전이며, 과연 그 환상은 짐승의 표인 일요일 법에 관한 것이다. 그 수는 '죄의 사람'의 수이자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의 수이기도 하다. 숫자 '666'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으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위에 찍히고 있다.

또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을 보았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었으니, 이는 그 재앙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침내 가득 차기 때문이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그 유리 바다 위에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며, 주의 일들은 크고 놀라우시며, 성도들의 왕이며,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시도다. 요한계시록 15:1-3.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기 직전에(요한계시록 다음 장에서 일곱 마지막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백성이 드러난다. 그들은 네 가지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로 번역된 단어는 '정복하다'라는 뜻이다. 신실한 자들은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정복하였다. 그 승리에는 그들이 그 네 가지 상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그 네 가지 예언적 상징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세상은 한때 제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가 교황권임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밝힌 대로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두로의 음녀에 대한 이해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잊혔다. 짐승을 이긴다는 것은 성경 예언의 짐승이 교황권임을 바로 알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다음 장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그 세 세력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 강에 쏟으니 그 강물이 말라 동방의 왕들이 지나갈 길이 준비되었다. 또 나는 용의 입에서와 짐승의 입에서와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는 그들이 이적을 행하는 악령들이어서 온 땅의 왕들, 곧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려 함이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았다. 요한계시록 16:12-16.

짐승에 대한 승리는 짐승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서 오는 승리이다. 방금 인용한 구절은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지만, 여섯째 재앙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시기가 완전히 끝난다. 미가엘이 일어나면 인류를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 후에 마지막 일곱 재앙이 쏟아진다. 은혜의 시기가 끝난 후에는 옷을 갈아입을 방법이 없지만, 여섯째 재앙과 관련된 경고가 있다. 그 경고는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이해가 없으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잃게 될 것이다.

“말씀에 대한 이해에 혼란을 일으키고 적그리스도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스스로를 적그리스도의 편에 두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세상과 동화될 시간이 없다.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과 자기의 자리에 서 있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은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들은 서로를 해석한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할 진리들을 세상에 전해 준다. 이 예언들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 날들에 그것들이 성취됨으로써, 그것들은 스스로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Kress Collection, 105.

누군가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교황권의 편에 서게 될 것이며, 또는 요한이 기록한 대로 벌거벗고 다니며 자기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짐승을 이긴다는 것은 그 짐승이 교황권이며, 교황권에 관해 계시된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승리를 얻고 교황권이 죄의 사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교황권의 형상이 교회가 그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이라는 원칙을 대표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니엘서에서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짐승의 체제는 '황폐하게 하는 범죄'로 묘사된다. 허물은 죄이며, 교황권의 짐승을 형성하는 죄는 왕들이 자신의 권세를 교황권에 넘겨줄 때 발생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데, 이것이 곧 다니엘이 말한 '황폐하게 하는 범죄'요, 요한이 말한 '짐승의 우상'이다.

교황의 형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국이 먼저 이 관계를 형성하고 곧 다가올 일요일 법에서 이를 비준하며, 이어 전 세계가 같은 관계를 받아들일수록 강요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미국이 온 세상에 강요하게 될 정교 관계는 세계 단일 정부(유엔)가 교황권과 동맹을 맺고, 그 구도에서 교황권이 통제 권력으로서 역할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짐승의 우상을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 짐승의 우상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이기는 것은 짐승의(곧 교황권의) 권위의 표를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짐승의 표는 일요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강제로 준수하게 하는 것이다. 그 표를 이기려면 일요일 예배가 태양 숭배이며, 그것이 다른 아닌 이방의 바알 숭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 승리에는 짐승의 표가 사람들에게 강요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지나간 여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일요일을 준수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이라고 정직하게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의 성실함과 그분 앞에서의 정직함을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가 법으로 강요되고, 참된 안식일의 의무에 관하여 세상이 깨우침을 받게 될 때에는, 로마의 권위 외에는 더 높은 권위를 갖지 않은 규정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누구든지 그로써 하나님보다 교황권을 더 높이는 것이 된다. 그는 로마와 로마가 제정한 제도를 강요하는 권세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의 표라고 선언하신 제도를 거절하고, 그 대신 로마가 자기 우월성의 증표로 택한 것을 높일 때, 그들은 이로써 로마에 대한 충성의 표, 곧 '짐승의 표'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쟁점이 이와 같이 분명히 사람들 앞에 제시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이끌어질 때에야 비로소, 범죄를 계속하는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대쟁투, 449.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은 그의 이름의 수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두로의 음녀가 잊혀지지 않았던 역사적 시기에는, 개신교 세계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바울이 교황권을 "그 불법한 자", "죄의 사람", "불법의 비밀", 그리고 "멸망의 아들"이라 지목하고,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숭배되는 모든 것에 대적하여 자기를 그 위에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 드러낸다"라고 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두로의 큰 음녀는 잊혀졌다.

옛 시대에는 숫자 '666'이 교황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여러 이소프세피, 또는 게마트리아의 적용들이 있었다. 그 대표적 예로, 교황의 미트라에는 Vicarius Filii Dei라는 말이 쓰여 있다. Vicarius Filii Dei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이는 곧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그의 주장을 가리킨다. Vicarius Filii Dei의 라틴 문자들은 숫자 육백육십육에 해당한다.

짐승, 곧 교황권은 그 수로 식별되며 그 수는 "666"이다. 그러나 죄의 사람은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고 잊혀졌다. 마지막 때에 그 치명적인 상처가 치유될 것이며, 그 상처의 치유는 미국이 먼저 자국에서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이어서 온 세계에도 같은 일을 강요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짐승의 세계적 형상은 이중적이기도 하고 삼중적이기도 하다. 예언적으로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으로 이루어졌기에 이중적이지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는 삼중적이다. 세계를 아마겟돈으로 이끌게 될 바로 그 권세들의 삼중 연합이 결성되면, 그들은 일곱에 속한 여덟째 왕국인 짐승이 될 것이며, 또한 여섯째 왕국의 삼중 연합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짐승의 이름의 수는 다시 "666"인데, 이는 각각이 여섯째 왕국의 일부인 세 왕국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것은 '여덟째는 일곱에 속한다'는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이 깨달기를 구했던 다니엘 2장의 비밀이며, 요한이 말한 대로 '때가 가까움이라' 할 그 때, 곧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한 요소이다. 이런 까닭에 그 승리를 얻는 자들은 재앙을 쏟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되니, 그들이 은혜의 시기가 닫히기 직전에 그 승리, 곧 필요한 예언적 이해를 얻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고, 숫자 "666"이 그 환상의 한 요소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에스겔 8장의 환상이 여섯째 해의 여섯째 달 다섯째 날(여섯째 날의 전날)에 시작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8장의 끝에 이르면 스물다섯 명의 남자가 해에게 절하고, 9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밝힌다.

그 환상의 맥락은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며, 그 환상은 숫자 '666'으로 예표된 일요일법에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에 드러난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요일법이 시행될 때 일어난다고 알려진 은혜의 문이 닫힘은 인류 전체의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은혜의 문이 닫힘이다.

그 환상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묘사된다. 미국에서 일요일 법령이 제정될 때, 그때 그곳에서 안식일의 빛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유일한 부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다.

진리의 빛이 당신에게 비추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드러내고, 일요일 준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보여 주었음에도, 여전히 거짓 안식일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한 날'이라 부르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이 보통의 일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임을 보여 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요일에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하는 칙령에 순종할 때, 당신은 짐승의 표를 받는 데 동의하고 하나님의 인을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게 되면, 불순종한 자들에게 선포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은 주님의 안식일을 양심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찍힌다. 리뷰 앤드 헤럴드, 1911년 4월 27일.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은 예루살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되기까지의 역사를 드러낸다. 이 환상은 숫자 "666"이 도래하기 바로 하루 전에 벌어지는 것으로 묘사되며, 8장은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격화되는 반역을 지적한다. 그 반역은 지도자들이 태양에게 절하여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다.

제9장은 한 천사가 예루살렘을 지나가며(따라서 진행 과정을 드러내며) 파괴하는 천사들에 앞서 한 부류에게 인을 치고, 그 다음 그 천사들이 인이 없는 모든 자를 죽이는 모습을 나타낸다. 두 장 모두 일요일 법령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역사를 나타내며, 그곳에서 한 부류는 태양에게 절하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때 악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거되는데, 일요일 법령이 악인과 지혜로운 자들을 갈라놓기 때문이다.

에스겔 9장에 나타난 인침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난 인침과 동일하다.

이러한 장면들이 올 것이라면, 죄 많은 세상 위에 이토록 엄청난 심판이 임할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들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 요한은 자연의 요소들—지진, 폭풍, 그리고 정치적 분쟁—이 네 천사에 의해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바람들은 하나님이 놓아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통제 아래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안전이 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때까지,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땅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 능한 천사가 동쪽(혹은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이 보인다. 이 가장 능한 천사는 그의 손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 곧 오직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이마에 표나 새김을 새기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가지고 있다. 그 표를 받은 이들에게는 불멸, 곧 영생이 허락된다. 바로 이 가장 높은 천사의 음성이 권세를 가지고 네 천사에게 명하여,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가 그것들을 풀어 놓으라는 호령을 내릴 때까지, 네 바람을 억제하게 하였다.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은총을 입을 것이다. 손이 깨끗하지 않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를 꾀하고 실행하는 자들은 지나쳐 버림을 당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에 있어, 위대한 반형적 대속죄일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의 자리를 채우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되어 표시될 것이다. 자기 구주께서 나타나시기를 아침을 기다리는 자들보다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굳게 바라보고 기다리며 깨어 있는 자들의 이름은 인침 받은 자들의 수에 들 것이다. 진리의 모든 빛이 그들의 영혼 위에 번쩍 비추고 있어 그들이 고백한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함에도, 죄에 유혹되어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혼을 부패시키며 죄에 함께하는 자들까지 더럽히는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등불은 있으나 그릇에 기름이 없어 한밤의 흑암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지니고 떠오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 인침은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보여 주신 것과 동일하다. 요한 또한 이 가장 놀라운 계시의 증인이었다. 그는 바다와 파도가 포효하는 것과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이 요동하고 산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이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 물이 포효하고 요동치며 그 물의 불어남으로 산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에게는 재앙, 역병, 기근, 그리고 죽음이 그들의 끔찍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보여졌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45.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인침은 에스겔 9장에도 표상되어 있으며, 그 인치는 천사는 동방에서 올라오는 가장 강력한 천사이다. 구원받지 못하여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등과 함께 쓰는 그릇에 기름이 없다"고 묘사된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에 나오는 두 부류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며, 그러므로 그들은 재림 신자들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또한 재림 신자들의 경험을 예시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393.

화이트 자매는 에스겔의 환상 속 예루살렘을 재림주의로 분명히 지목한다:

주님의 사업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마음에 지닌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언제나 죄를 그 본래의 죄악된 성격 그대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얹매는 죄들을 신실하고 분명하게 다루는 편에 항상 설 것이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십사만 사천이 인치는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의 잘못을 가장 깊이 느낄 것이다. 이는 각기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든 사람들의 형상으로 마지막 일을 묘사한 선지자의 예증을 통해 힘 있게 드러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중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증언 3권, 266쪽.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은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와 그때의 재림운동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것은 예루살렘(재림운동) 안에 있는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식별하며, 은혜의 시간이 마감되기 직전에 봉인이 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그 첫 언급에서 예언적 상징으로 숫자 "666"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들이 승리해야 할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식별하며, 그 네 가지는 "일곱에 속한" 여덟째의 빛의 일부이다. 요한계시록 15장도 교황권의 네 가지 상징적 측면을 이긴 자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말한다.

이사야는 27장에서, 그 날에 마지막 때의 의로운 자들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 노래는 어린 양이 사람들 가운데서 걸어 다니셨을 때 부르셨던 노래로, 새로운 택한 백성이 선택되는 가운데 기존의 택한 백성이 제쳐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 노래는 에스겔서 9장과 요한계시록 7장의 인침이 진행되는 동안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이 부른다. 에스겔서 8장부터 11장까지의 환상은 바로 그 노래의 일부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주님의 사역과 영혼 구원의 정신을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언제나 죄를 그 본래의 죄된 성격 그대로 바라볼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얹매는 죄들을 성실하고 솔직하게 다루는 편에 항상 설 것이다. 특히 교회를 위한 마무리 사역,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서게 될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는 이들의 잘못을 가장 깊이 가슴 아파할 것이다. 이것은 선지자가 마지막 사역을 각기 손에 살육의 무기를 든 사람들의 형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을 통해 강하게 드러난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찼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서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잘못을 사실상 용인하고, 비록 공공연히는 아니더라도 죄를 책망하려는 자들을 마음속으로 원망하는 자들인가? 그들에게 대적하여 서서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자들인가? 결단코 아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사역의 짐을 진 자들을 압제하고 시온에서 죄인들의 손을 붙들어 주는 사탄의 일을 떠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승인하시는 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살육 무기를 든 다섯 사람이 하는 일로 상징된 악인들의 전반적 멸망 속에 쓰러질 것이다. 이 점을 주의 깊이 새겨 두라: 배 옷을 입은 사람이 하는 표로 대표되듯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속에 이루어진, 진리의 순수한 표를 받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들이다. 그들은 순결과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그토록 사랑하며, 죄의 지극한 죄악성을 너무도 분명히 보기 때문에, 탄식하고 울부짖을 만큼 고통하는 자들로 묘사된다. 에스겔 9장을 읽어라.

"그러나 죄와 의 사이의 현저한 대조를 이와 같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회의에 서서 표를 받는 자들이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학살은, 살육의 무기를 든 다섯 사람에게 내린 명령 가운데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그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다니며 쳐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노인과 젊은이,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모두 죽이라. 그러나 표가 있는 누구에게도 가까이 가지 말고, 내 성소에서 시작하라.'" 증언, 제3권, 266, 267쪽.